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1차원고접수: 2022.07.08. 수정원고접수: 2022.11.25. 최종게재결정: 2022.12.27.

임천규¹ · 장은비²

¹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교상담 전공, 석사

²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Lim, Cheon-Gyu¹

Chang, Eunbi²

¹Dept. of School Counsell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생 255명(남자 79명, 여자 176명)이 내현적 자기애 척도,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척도,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우울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AMO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정적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특성을 지닌 대학생이 부적응적으로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대인관계 유능성은 저하되고 이것은 높은 수준의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특성을 지닌 대학생이 우울을 경험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낮추는데 초점을 둔 개입전략이 제공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내현적 자기애,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대인관계 유능성, 우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the associ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255 college students (male: 79, female: 176) participated in a self-reported online survey consisting of a covert narcissism scale, a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scale, an interpersonal competence scale, and a depression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AMOS 26.0. As a result,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mediate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sequentially. This means that if a college student with covert narcissism only focuses on himself maladaptively, then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was reduced, which was linked to a high level of depression. Th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provide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focus on reducing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with covert narcissism.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Keywords *covert narcissism,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depress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Levinson(1986)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를 가장 큰 에너지와 풍부함이 있는 시기임과 동

시에 가장 큰 모순과 스트레스의 시기라고 하며, 젊은 포부를 형성하여 추구하고, 사회의 틈새시장을 구축하며, 사랑과 성, 직업 진출 등의 삶의 주요 목표 실현 측면에서 풍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하였다. Arnett(2000)도 대학생 시기를 단순히 성인 역할로

* 본 연구는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2)을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장은비 (Chang, Eunbi)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Dept.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eunbichang@kangwon.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전환하는 짧은 시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 확실히 결정된 것이 거의 없고, 다양한 방향 선택이 가능하며, 가장 자발적인 시기이자 삶의 가능성에 관한 독립적인 탐구의 범위가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큰 ‘신흥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학생들은 새로운 도전과 더불어 많은 좌절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흥미의 상실, 침울한 기분, 무기력함, 무가치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우울장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는 대학생 시기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12), 실제로 2020년에 국내에서 실시한 국민건강통계에서는 19~29세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질병관리청, 2020).

대학생 시기의 우울 경험은 학교생활적응(서명옥, 강윤심, 최보영, 2020)과 학업성취(김경령, 서은희, 2018)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살 생각(서인균, 이연실, 2014)과 자살위험(양혁, 이경주, 고혜연, 이상민, 2020)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우울과 같이 초기 성인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 뿐만 아니라(최명주, 2015), 성인기의 가정 및 사회생활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2012). 그러나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사람 중 약 22% 정도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은 우울장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중요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용희, 2020). 따라서 우울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울한 대학생들을 상담 및 치료 장면으로 이끌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우울로 발생하는 이차적인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 연구들에서 살펴본 우울 관련 요인은 크게 개인 내적·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개인 내적·심리적 요인으로는 거부민감성(류혜라, 박기환, 2014), 자기효능감(박광희, 2008), 자기존중감(박의수, 조영채, 2018), 완벽주의(한주연, 박경, 2011), 내현적 자기애(구현경, 김종남, 2014; 김민서, 2017) 등이 우울의 위험 또는 보

호요인으로 연구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학업 및 경제스트레스(심은정, 2016), 취업스트레스(이현숙, 배상윤, 2019), 사회적 지지(구현경, 김종남, 2014), 가족건강성(강부자, 최연실, 2016) 등이 우울과 정적 혹은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대학생의 우울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곽현주, 김현주, 2013)에서는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의 우울에 대한 효과크기가 가족환경 요인이나 학교환경 요인의 효과크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희의 연구(2008)에서도 성격적 취약성(예: 과민성, 불안정성, 열등감, 내향성, 불편감, 자아강도 등)과 같은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비해 우울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는 가족,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도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 내적·심리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곽현주, 김현주, 2013). 따라서 대학생의 우울과 관련된 개인 내적·심리적 요인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인 내적·심리적 요인들 가운데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나르시즘과 같은 개인의 우월감 및 개성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빠르게 변모해 왔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인 자기애 성향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선경, 팔로마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 사람들이 자기애적인 성향을 일정 부분 갖는 것은 긴장과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Lasch, 1980).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개발하여 남과 다른 차별성을 보유하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윤동균, 서미아, 2021).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다른만을 강조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이는 부적응적인 자기애로 발전할 수 있다(윤동균, 서미아, 2021).

자기애적 특성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내

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로 구분할 수 있다(Akhtar & Thomson, 1982). 강선희와 정남운(2002)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애는 웅대성 및 과장된 자기지각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특징이며,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쉽게 상처를 받는 취약성 및 민감성이 특징이다. 외현적 자기애는 열등감이나 우울, 소진과 같은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고(강선희, 정남운, 2002) 불쾌한 정서를 덜 느끼며 자존감이 높아 긍정적인 심리 특성을 보이며(이지원, 장은영, 2011), 비교적 적응적인 모습을 보인다(Weikel, Avara, Hanson, & Kater, 2010).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과민한 모습, 무력감,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등 부적응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Dickinson & Pincus, 2003; Pincus et al., 2009).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으면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회피하고, 타인의 비판에 과민반응을 보이며 부적절감, 수치심, 우울을 쉽게 경험하기에(Huprich, Luchner, Roberts, & Pouliot, 2012)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외현적 자기애보다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강한 내현적 자기애에 관심을 가졌다(예: 구현경, 김종남, 2014; 박선영, 이정운, 2020; 이현주, 이영순, 2020; 정구철, 문중호, 2015).

내현적 자기애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대학생 시기는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자기애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불확실함을 경험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등의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강선희, 정남운, 2002;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이 나타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현적 자기애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는 우울, SNS 중독경향성, 데이트폭력 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 정구철과 문중호의 연구(2015)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

성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남귀숙과 이수진의 연구(2020)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역기능적 분노 표현을 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 밖에도 내현적 자기애는 자살생각(이현주, 이영순, 2020), 심리적 부적응(구현경, 김종남, 2014), 우울(김민서, 2017) 등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내현적 자기애가 어떻게 우울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우울에 대한 개입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우울을 경험하는 이유 중 하나로서, 그들이 보이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Ingram(1990)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자기몰입(self-absorption)’이라고 명명하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이는 자기몰입의 경직성이 우울과 같은 정신장애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부정적인 평가에 취약하다. 따라서 자신이 타인에게 부정적 평가를 들을만한 단서가 있는지에 대해 과도하게 살피며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김지현, 2016).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만한 상황에서 외부가 아닌 자기 내부로 초점을 집중하게 되고(김혜원, 이지연, 2017),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대하게 인식하며 외부의 자극보다는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유하경, 2020).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특성을 보이는데(김보람, 백용매, 2018; 김지현, 2016; 김혜원, 이지연, 2017; 유하경, 2020), 이러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우울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아롱, 김정민, 송근아, 2017; 류석진, 조현주, 2017; 박은, 김정민, 2017; 박지영, 박주희, 2019; 신해림, 김정민, 2020; 이인혜, 2008; 정유정, 이동형, 2021; 조민희, 홍혜영, 2017; 함성민, 현명호, 2015; Larsen & Cowan, 1988; Smith & Greenberg, 1981; Takano & Tanno, 2009). 조민희와 홍혜영(2017)

은 자기몰입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몰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은 잘 하지 않아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류석진과 조현주의 연구(2017)에서는 부적응적인 자기초점주의가 반추를 통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높으면 부정적인 기분 및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울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부적응적인 자기초점주의가 높고, 그로 인해 우울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낮은 대인관계 유능성이 우울과 관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대인관계 유능성이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형성하고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Spitzberg & Cupach, 1989)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을 수 있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민감한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 주장성이 결여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근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강선희, 정남운, 2002; 박세란 등, 2005). 즉, 이들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에게 주의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비하한다(강선희, 정남운, 2002). 그리고 이러한 자기비하적인 태도는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나 위상을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게 만들어 타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한유정, 2017). 이들은 또한 이상적인 자기상과 현실의 자기상 간의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 불일치를 무시하고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며(배미정, 조한익, 2014), 타인이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켜주기 바라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을 요구한다(박세란 등, 2005; 최바울, 2016). 그러나 웅대한 자기상이 위협받거나 보장되

지 않는 경우, 회피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보이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철수하려 하며 결국에는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이성욱, 송현주, 2011; 최바울, 2016).

대인관계 기술 및 능력 부족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여진, 류석진, 조현주, 2019; 한나리, 이동귀, 2010). 반면, 대인관계에서의 유능성은 주관적 행복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혜영(2017)은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배미정, 조한익, 2014)에서도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또는 주관적 안녕감이 우울과 부정적 상관이 있음을 고려해볼 때(김성수, 2015; 김현정, 손정락, 2006; 이석미, 박춘성, 성은현, 2021),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낮은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인해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대인관계 유능성은 앞서 살펴본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우옥수, 이자영, 2020; 전지은, 202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로 인한 지나친 자기 인식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최지선, 2011), 외부로의 주의 전환을 어렵게 만들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5). 또한, 자기 내면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사회불안이 증가하는데(김기호, 이장한, 2010; 조나영, 이민규, 2017), 이러한 사회불안이 대인관계의 유능성과 부정적 상관(강수진, 최영희, 2011)이 있음을 고려할 때도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높으면 대인관계 유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우옥수와 이자영의 연구(2020)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인 자기몰입이 자기자비와 인지적 공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몰입이 높을수록 자기자비는 낮고, 자기자비 수준이 낮을수록 인지적 공감능

력도 떨어지게 되며, 이는 결국 낮은 수준의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개별 매개효과는 물론,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상담 장면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유형의 내담자이며, 내현적 자기애는 성격적 특성이기에 일회적인 상담이나 교육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인지적 과정(조나영, 이민규, 2017)으로서 상대적으로 개입이 용이한 변인이며, 대인관계 유능성 역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대인관계의 어떤 영역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구체화하고 개입할 수 있는 변인(한나리, 이동귀, 2010)이기에, 이 두 변인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의 우울에 대한 개입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모형(그림 1 참조)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대인관계 유능성, 우울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내현적 자

기애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2. 대인관계 유능성은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3.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은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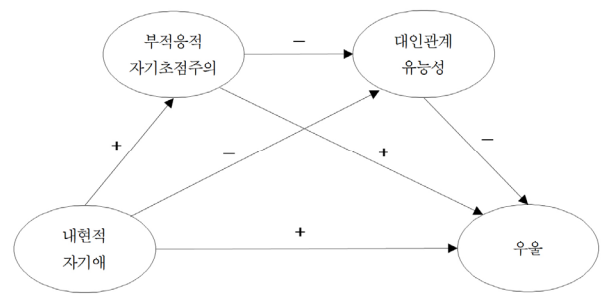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22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구 참가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전국 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구 안내문을 게시하여 모집하였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설문이 종료되고 약 한 달 뒤에 연구 참가에 대한 답례로 기프트콘(3천원)을 제공했다.

설문 문항이 제시되기에 앞서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참여와 관련된 안내 페이지가 제시되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266명의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5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의 평균 연령은 22.9세($SD = 1.93$)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1)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 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 CNS)를 사용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척도 5개를 도출하였는데 이를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과 외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이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255)

	구분	빈도(%)
성별	남	79(31.0)
	여	176(69.0)
학년	1학년	42(16.5)
	2학년	52(20.4)
	3학년	81(31.7)
	4학년	80(31.4)
나이	19세	2(0.8)
	20세	32(12.5)
	21세	27(10.6)
	22세	55(21.6)
	23세	40(15.7)
	24세	39(15.3)
	25세	37(14.5)
	26세	13(5.1)
	27세	10(3.9)
대학 소재지	서울	131(51.4)
	인천	14(5.5)
	경기도	39(15.3)
	강원도	40(15.7)
	충청도	20(7.8)
	전라도	1(0.4)
	경상도	10(3.9)

공유하는 척도, 내현적 자기에 성격 성향만의 고유한 척도로 구분하였다. 공유하는 척도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9문항(예: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과 착취/자기중심성 9문항(예: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한 척도는 목표불안정 9문항(예: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과 과민/취약성 10문항(예: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소심/자신감 부족 8문항(예: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고유한 척도(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에 신경증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척도만을 사용하여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면 높은 점수가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 때문인지, 신경증적인 경향성 때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며, 공유 척도와 고유 척도 점수가 모두 높을 경우를 내현적 자기에자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하는 척도와 고유한 척도를 모두 사용하여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였다.

참여자들은 총 45문항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전적으로 그렇다)까지 반응하였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격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의 연구(2002)에서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82, 착취/자기중심성 .78, 목표 불안정 .92, 과민/취약성 .84, 소심/자신감 부족 .80, 전체 문항이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92, 착취/자기중심성 .78, 목표불안정 .81, 과민/취약성 .84, 소심/자신감 부족 .81, 전체문항이 .93으로 나타났다.

2) 우울 척도(통합적 한국판 CES-D)

역학조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여 우울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우울정서 7문항(예: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긍정적 정서 4문항(예: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대인관계 2문항(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신체기능 저하 7문항(예: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으로 되어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0점(1일 이하, 극히 드물게), 1점(1 ~ 2일, 가끔), 2점(3 ~ 4일, 자주), 3점(5 ~ 7일, 거의 대부분)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다. 우울정서, 대인관계, 신체기능 저하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의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고, 하위요인 중 긍정적 정서는 역채점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전경구 등의 연구(2001)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우울정서 .93, 긍정적 정서 .84, 대인관계 .87, 신체기능 저하 .86, 전체 .95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3)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DSAS)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이지영과 권

석만(2005)이 개발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 SDS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두 가지 하위요인(30 문항)을 포함하며,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9문항, 자신의 특정 측면에만 과도하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자기몰입을 측정하는 21문항(예: “내 의견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초점 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몰입을 측정하는 2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반응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상황과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과 같이 다른 사람이 관찰하는 수행상황의 대인불안이 유발되는 두 가지 사회적 상황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이지영과 권석만의 연구(2005)에서 자기몰입 측정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4)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K-ICQ)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88)의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K-ICQ)를 사용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 형성 및 개시 8문항(예: “새로운 사람에게 함께 모이거나 무엇인가를 같이 하자고(예를 들면, 사귀자고)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것”),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예: “친구에게 그(녀)가 대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예: “친한 친구가 중요한 삶의 결정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처리하도록 돕는 것”), 갈등관리 6문항(예: “친한 친구와 의견 불일치가 생겨 큰 싸움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적절한 자기개방 3문항(예: “새로운 친구나 데이트 상대를 믿고 그가 당신의 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보도록 하는 것”)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1문항으로, 1점(잘 못한다)에서 5점(매우 잘한다)으로 측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리와 이동귀의 연구(2010)에서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관계 형성 및 개시 .80,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60, 타인에 대한 배려 .75, 갈등관리 .79, 적절한 자기개방 .53, 전체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관계 형성 및 개시 .90,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85, 타인에 대한 배려 .88, 갈등관리 .85, 적절한 자기개방 .70, 전체 .9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6.0 프로그램과 AMO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6.0을 활용하여 수집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고,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2단계 접근법을 따라 분석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먼저, AMO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여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고, 이어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애 척도,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척도, 우울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확인된 요인구조에 따라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를 만들었다. 문항 꾸러미를 활용하면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r fit index), Chi-square 등과 같은 측정값을 더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고,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

킬 수 있으며, 분포의 비정규성과 관련한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andalos,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경우, 다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영역 대표성 방법(domain consistency approach)을 활용하여 각각의 꾸러미가 개념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모든 요인에 속하는 문항을 골고루 선택하는 방식(홍세희, 정송, 2014)으로 5개의 문항 꾸러미(내현적 자기애1, 내현적 자기애2, 내현적 자기애3, 내현적 자기애4, 내현적 자기애5)를 구성하였으며,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척도와 우울 척도의 경우, 일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균형할당 방법(balancing assignment)을 활용하여 각각의 꾸러미의 요인부하량이 균등해지도록 문항의 요인부하량의 크기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홍세희, 정송, 2014)으로 각각 3개의 꾸러미(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2,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3)와 4개의 꾸러미(우울1, 우울2, 우울3, 우울4)를 구성하였다. 특히, 우울 척도는 전점구 등의 연구(2001)에서 4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신재은, 이태현과 윤소진의 연구(2017)에서 강력한 일반요인을 갖는 단일차원으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여러 선행연구(김여진 등, 2019; 김지선, 이소연, 2018; 노승혜, 조현주, 2017; 문현정, 김정규, 2019;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윤소진, 장혜인, 2019)에서 단일차원으로 분석한 것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따랐다.

측정모형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 외에도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 Lewis index)를 통해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χ^2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홍세희, 2000) 표본 크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다른 적합도 지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FI와 TLI의 경우, .90 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하며(홍세희, 2000), RMSEA의 값은 대략적으로 .05 이하면 꼭 들어맞는 적합도(close fit), .08 이하면 적당한 적합도(reasonable fit), .10을 초

과하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Browne & Cudeck, 1992). 또한 추가적으로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신뢰도(CR)를 산출하였는데, 평균분산추출(AVE)값은 .50 이상인 경우, 개념신뢰도(CR)는 .70 이상인 경우 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우종필, 2022).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각 경로 계수의 유의성을 살펴보고,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를 생성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측정 변인인 내현적 자기애, 우울,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대인관계유능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합계, 왜도, 첨도의 기술 통계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의 왜도가 절댓값 2를 넘지 않았고, 첨도는 절댓값 7을 넘지 않아 모든 변인이 정규성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대인관계 유능성, 우울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r = .69, p < .01$) 및 우울($r = .62,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대인관계 유능성($r = -.39, p < .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대인관계 유능성($r = -.51, p < .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우울($r = .71,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은 우울($r = -.52,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표 2. 주요 연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변인	하위요인	평균	합계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내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1	3.06	27.50	.72	-.41	-.02
	내현적 자기애 2	3.26	29.36	.68	-.41	.09
	내현적 자기애 3	2.70	24.38	.68	-.24	-.54
	내현적 자기애 4	3.10	27.91	.66	-.28	.05
	내현적 자기애 5	3.29	29.62	.57	-.39	.03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1	2.91	20.35	1.03	.09	-.99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2	2.97	20.81	1.05	-.16	-.98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3	2.76	19.30	.98	.07	-.87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 형성 및 개시	3.07	24.57	.91	.09	-.77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2.93	20.53	.85	-.06	-.61
	타인에 대한 배려	3.45	24.14	.84	-.63	.04
	갈등관리	3.46	20.79	.85	-.48	-.26
	적절한 자기개방	2.68	8.05	.92	.26	-.59
우울	우울 1	1.08	5.38	.77	.39	-.87
	우울 2	1.17	5.83	.79	.38	-.88
	우울 3	1.18	5.90	.77	.45	-.79
	우울 4	1.14	5.69	.77	.49	-.67

표 3. 상관분석 결과

(N = 255)

	C	C1	C2	C3	C4	C5	M	M1	M2	M3	I	I1	I2	I3	I4	I5	D	D1	D2	D3	D4
C	1																				
C1	.92**	1																			
C2	.92**	.83**	1																		
C3	.86**	.74**	.72**	1																	
C4	.92**	.79**	.79**	.77**	1																
C5	.88**	.78**	.78**	.65**	.79**	1															
M	.69**	.62**	.62**	.69**	.62**	.54**	1														
M1	.63**	.56**	.55**	.69**	.57**	.45**	.94**	1													
M2	.67**	.62**	.63**	.63**	.60**	.54**	.95**	.82**	1												
M3	.66**	.58**	.60**	.67**	.60**	.54**	.97**	.88**	.89**	1											
I	-.39**	-.33**	-.39**	-.44**	-.32**	-.29**	-.51**	-.46**	-.53**	-.48**	1										
I1	-.35**	-.29**	-.35**	-.35**	-.26**	-.31**	-.42**	-.33**	-.48**	-.38**	.86**	1									
I2	-.22**	-.20**	-.27**	-.20**	-.16**	-.16*	-.35**	-.30**	-.36**	-.33**	.72**	.54**	1								
I3	-.34**	-.27**	-.31**	-.45**	-.28**	-.20**	-.49**	-.47**	-.46**	.86**	.64**	.43**	1								
I4	-.38**	-.32**	-.31**	-.48**	-.35**	-.24**	-.46**	-.48**	-.43**	-.41**	.75**	.50**	.30**	.77**	1						
I5	-.20**	-.17**	-.22**	-.17**	-.16*	-.17**	-.21**	-.16**	-.26**	-.19**	.65**	.55**	.47**	.44**	.33**	1					
D	.62**	.55**	.56**	.69**	.55**	.40**	.71**	.71**	.65**	.67**	-.52**	-.39**	-.27**	-.53**	-.55**	-.24**	1				
D1	.56**	.49**	.51**	.64**	.50**	.36**	.68**	.68**	.62**	.65**	-.51**	-.38**	-.27**	-.53**	-.54**	-.23**	.95**	1			
D2	.60**	.54**	.55**	.65**	.55**	.41**	.65**	.65**	.61**	.60**	-.45**	-.36**	-.23**	-.44**	-.48**	-.21**	.94**	.85**	1		
D3	.59**	.53**	.52**	.67**	.51**	.37**	.66**	.68**	.59**	.63**	-.48**	-.36**	-.25**	-.49**	-.50**	-.22**	.95**	.87**	.85**	1	
D4	.60**	.54**	.54**	.67**	.53**	.38**	.70**	.70**	.63**	.67**	-.52**	-.37**	-.27**	-.55**	-.58**	-.24**	.96**	.88**	.87**	.89**	1

주. C: 내현적 자기애, C1: 내현적 자기애1, C2: 내현적 자기애2, C3: 내현적 자기애3, C4: 내현적 자기애4, C5: 내현적 자기애5, M: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M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1, M2: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2, M3: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3, I: 대인관계 유능성, I1: 대인관계 유능성1, I2: 대인관계 유능성2, I3: 대인관계 유능성3, I4: 대인관계 유능성4, I5: 대인관계 유능성5, D: 우울, D1: 우울1, D2: 우울2, D3: 우울3, D4: 우울4
*, $p < .05$. **, $p < .01$.

2. 내현적 자기애,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대인관계 유능성, 우울의 관계

1)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

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우울에 대해서는 문항 묶음(i-

tem parceling)을 통해 각각 3~5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고 분석에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TLI = .935, CFI = .946, RMSEA = .090)으로 나타났으며(표 4 참조), 측정변수들은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beta = .83 \sim .90$)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beta = .92 \sim .95$), 대인관계 유능성($\beta = .50 \sim .92$), 우울($\beta = .91 \sim .95$)의 측정변인들 모두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 참조).

2) 연구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뒤 내현적 자기애를 독

립변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을 매개변수,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 .935, CFI .946으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90 이상을 충족하였고, RMSEA의 값은 .090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와 표 7에 나타난 것처럼, 연구모형에서 각 변인 간의 경로인 구조경로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로 가는 경로($\beta = .7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beta = -.53$),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beta = -.28$),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beta = .44$), 내현적 자기애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beta = .21$)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347.317	113	.000	.935	.946	.090

표 5. 측정모형 분석 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t	AVE	CR
내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5	1.00	.85				
	내현적 자기애 4	1.21	.90	.06	19.32***		
	내현적 자기애 3	1.15	.83	.07	16.73***	.77	.94
	내현적 자기애 2	1.26	.90	.07	19.25***		
	내현적 자기애 1	1.33	.90	.07	19.39***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3	1.00	.94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2	1.04	.92	.04	27.69***	.88	.96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1	1.00	.95	.03	31.67***		
대인관계 유능성	적절한 자기개방	1.00	.51				
	갈등관리	1.44	.80	.35	8.20***		
	타인에 대한 배려	1.64	.92	.45	8.55***	.50	.83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91	.50	.34	6.30***		
	관계 형성 및 개시	1.38	.71	.48	7.74***		
우울	우울 4	1.00	.95				
	우울 3	.98	.93	.03	30.56***	.87	.96
	우울 2	.98	.91	.04	27.98***		
	우울 1	.97	.93	.03	29.65***		

*** $p < .001$.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347.317	113	.000	.935	.946	.090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beta = -.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강할수록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도 강해지고,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강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강할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로 가는 간접경로로 총 3가지(내현적 자기애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우울, 내현적 자기애 → 대인관계 유능성 → 우울, 내현적 자기애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대인관계 유능성 → 우울)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유능성을 매개하여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로를 제외하고,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매개로 하여 우울로 가는 경로와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만 팬텀 변수를 설정하여 개별적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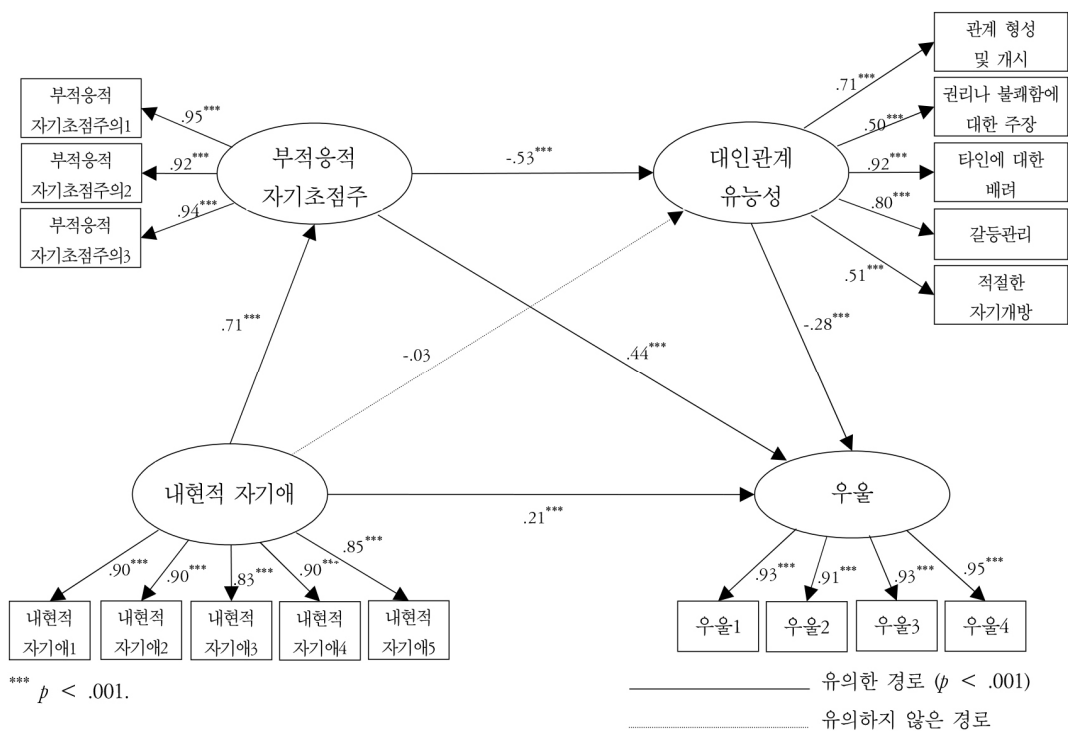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표 7. 연구모형의 효과 분석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내현적 자기애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71***	-	.71***
내현적 자기애 → 대인관계 유능성	-.03	-.38***	-.4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대인관계 유능성	-.53***	-	-.53***
대인관계 유능성 → 우울	-.28***	-	-.28***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우울	.44***	.15***	.59***
내현적 자기애 → 우울	.21***	.43***	.63***

*** $p < .001$.

표 8.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B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내현적 자기에 →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 → 우울	.38	.06	.26	.50
내현적 자기에 →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 → 대인관계 유능성 → 우울	.08	.03	.03	.14

AMOS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간접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각각의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어렵지만, 모델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상변수인 팬텀 변수를 통해 특정 간접효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역시 부트스트래핑을 실행하면 확인할 수 있다(배병렬, 2017).

95% 신뢰구간에서 10,000개의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가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38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은 .26 ~ .5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가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해 우울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08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은 .03 ~ .1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 참조).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 대인관계 유능성,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현적 자기에는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현적 자기에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의 수준도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으며,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를 감소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우울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박세란의 연구 결과(2004)와 일치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내현적 자기에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울과 더 많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이상미와 이숙의 연구 결과(2009)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의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는 내현적 자기에 및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내현적 자기에가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로 가는 직접경로와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로 가는 직접경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보다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두하여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를 유발할 수 있고, 타인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나 자신의 내부에 더 주의를 집중하게 되어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지현, 2016; 유하경, 2020)을 지지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부정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집중하게 하여 외부에서 발생하는 자극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긍정적인 정서와 활동에너지도 감소하게 하며, 무기력함과 같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게 한다는 선행연구(박지영, 박주희, 2019)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대하게 인식하는 특징이 외부의 자극보다는 스스로에게 과도하게 몰두하게 만들어 부정응

적 자기초점주의를 유발하고(유하경, 2020), 이러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우울로 이어지는 것이다(박지영, 박주희, 2019).

또 다른 매개변인인 대인관계 유능성의 개별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이 우울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과 우울의 유의미한 부적 관계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한 배성만의 연구(2015) 뿐 아니라 대인관계 유능성이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고(정혜진, 2014), 낮은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Gao et al., 2020; Smith-adcock & Kerpelman, 2022)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과 안녕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들(김혜영, 2017; 손솔, 서경현, 2014)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소 피상적인 관계를 경험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이성욱, 송현주, 2011) 및 내현적 자기애의 역기능적 성격 특징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저해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권은희, 2022; 배미정, 조한익, 2014; 정은이, 2018; 한유정, 2017)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초반에는 자신의 일부만 드러내며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은 감추려 하는 특성(Akhtar & Thomson, 1982)과 대인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자신의 현실 모습과 이상적인 자기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상적인 자기상을 유지하려는 내현적 자기애자의 특징(이성욱, 송현주, 2011)으로 인해 응답자 중 일부는 자신의 원래 모습을 감추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유능하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순차적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높고,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높으면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아지는데, 이것이 높은 수준의 우울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에 취약한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자신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은 만한 단서가 있는지를 과도하게 살피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적응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김지현, 2016). 자신에게만 주의를 집중하여 대인관계에서도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며(우옥수, 이자영, 2020; 이지영, 권석만, 2005), 그로 인해 대인관계 유능성은 낮아지게 되고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Gao et al., 2020; Smith-adcock & Kerpelman, 2022)이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하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낮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매개로 혹은 직접적으로 높은 우울로 이어진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우울이 높은 대학생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일단 상담자는 내담자의 우울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내현적 자기애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가 먼저 자신의 내현적 자기애 특성을 인지해서 상담자에게 보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과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그들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수준을 평가하고 낮춰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주의전환훈련’과 같은 인지적 과정에 중점을 두어 개입하는 것(윤이나, 심은정, 2020)뿐 아니라, 마음챙김과 명상을 통해 부정적인 측면에만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융통성 있게 주의를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영, 2011), 주의집중 훈련이나 인지적 활동 수준을 증가시켜 주의 분산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주의 유연성 훈련(김아롱 등, 2017) 등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증진과 자기수용적인 태도 함양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우울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김장년, 2018). 한편, 우옥수와 이자영(2020)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인 자기몰입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자기자비와 인지적 공감의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기몰입이 높을 경우, 자기자비를 높이는 개입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대학생들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로 인한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자비 집단 프로그램(박세란, 이훈진, 2015)을 실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낮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해 우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강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를 살펴보고 개입하는 것도 우울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담자는 5가지 대인관계 유능성 영역(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 관리, 적절한 자기개방)별로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 내담자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영역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한나리, 이동귀, 2010).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에게는 대인관계 맺는 법 등을 교육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나 불쾌한 감정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담자에게는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고, 자기주장 증진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정은이(2011)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자기 성장 및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대학생들 사전에 선별하여 이러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이들의 우울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임상 집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비교적 건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병리적인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나타내는 집단에까지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연구 대상을 다양하게 표집하고,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도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형식의 측정 도구만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응답자의 반응을 왜곡,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거나 실험연구 방식으로 연구를 구성해나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인 이외에 또 다른 정서적, 인지적, 환경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우울을 경험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 기제를 다양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성별을 구분하여 연구 결과를 살펴보지 않았고, 연구 대상의 성비가 균등하지 않았다. 우울의 경우 성별에 따라 보고되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고은영, 김은향, 2017; 김경숙, 2021; 김다인, 안도희, 2019; 손한결, 김은혜, 2021; 신혜진, 2019; 심은정, 2016; 이소영, 2014),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을 고르게 표집하고, 성별에 따라 연구 결과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되었던 내현적 자기애, 우울,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하나의 모형 안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새로운 매개변인의 가능성을 밝힘과 동시에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했다. 마지막으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내담자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부자, 최연실 (2016).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3(3), 71-90.
<https://doi.org/10.15284/kjhd.2016.23.3.71>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수진, 최영희 (201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53-68.
- 고은영, 김은향 (2017). 불안과 우울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합연구*, 15(5), 419- 429.
<https://doi.org/10.14400/JDC.2017.15.5.419>
- 곽현주, 김현주 (2013). 한국 대학생의 우울 관련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0(7), 75-98.
- 구현경, 김종남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응적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609-636.
<https://doi.org/10.15703/kjc.15.2.201404.609>
- 권은희 (2022).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령, 서은희 (2018). 대학생의 우울수준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정서적 특성의 차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237-257.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21.237>
- 김경숙 (202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활용. *보건행정학회지*, 31(3), 374-383.
<https://doi.org/10.23948/kshw.2022.06.24.2.35>
- 김기호, 이상한 (2010). 자기초점적 주의가 낮불침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729-743.
<https://doi.org/10.15842/kjcp.2010.29.3.005>
- 김다인, 안도희 (2019). 대학생의 감사, 낙관성, 우울 및 행복감의 구조적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7(1), 131-157.
<https://doi.org/10.30916/KERA.57.1.131>
- 김민서 (2017).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자기비난, 자기자비,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람, 백용매 (2018). 성인여성의 내현적 자기애가 신체화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초점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10-210.
- 김성수 (2015). 기본심리욕구, 생애목표,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1), 1-25.
<https://doi.org/10.17286/KJEP.2015.29.1.01>
- 김아롱, 김정민, 송근아 (2017).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7(4), 575-595.
- 김여진, 류석진, 조현주 (2019). 우울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기초점적 주의와 자기지향적 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7), 57-83.
<https://doi.org/10.21509/KJYS.2019.07.26.7.57>
- 김용희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우울반추를 통한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2), 457-480.
<https://doi.org/10.21509/KJYS.2020.12.27.12.457>
- 김장년 (2018).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우울과의 관계: 자기개념명확성과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 이소연 (2018).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6(2), 365-383.
<https://doi.org/10.35151/kyci.2018.26.2.017>
- 김지현 (2016).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손정락 (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과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 361.
- 김혜영 (2017). 대학생의 신체외식, 신체존중감,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유능성, 주관적행복감의 관련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이지연 (201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간의 매개변인 탐색: 자기몰입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청소년상담연구*, 25(1), 247-270.
<https://doi.org/10.35151/kyci.2017.25.1.012>
- 남귀숙, 이수진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1), 87-107.
<https://doi.org/10.16983/kjsp.2020.17.1.87>
- 노승혜, 조현주 (2017). 사회불안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통 감내력과 회피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429-449.
<https://doi.org/10.23844/kjcp.2017.05.29.2.429>
- 류석진, 조현주 (2017).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반추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6(3), 339-350.
<https://doi.org/10.15842/kjcp.2017.36.3.005>
- 류혜라, 박기환 (2014).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203-218.
<https://doi.org/10.17315/kjhp.2014.19.1.011>
- 문현정, 김정규 (2019). 우울과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5(2), 193-212.

- 박광희 (2008). 대학생 우울에 관한 예측모형 구축. *대한간호학회지*, 38(6), 779-788.
<https://doi.org/10.4040/jkan.2008.38.6.779>
- 박선영, 이정운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9(3), 109-125.
<https://doi.org/10.22839/adp.2020.9.3.109>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박세란, 이훈진 (2015).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583-611.
- 박은, 김정민 (2017).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사회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3), 669-685. <https://doi.org/10.17315/kjhp.2017.22.3.011>
- 박의수, 조영채 (2018). 일부 대학생의 우울수준 및 그의 관련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6), 219-230.
<https://doi.org/10.5762/KAIS.2018.19.6.219>
- 박지영, 박주희 (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9(2), 69-84.
<https://doi.org/10.30528/jolss.2019.9.2.004>
- 배미정, 조한익 (2014). 내현적 자기애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상담학연구*, 15(6), 2417-2435.
<https://doi.org/10.15703/kjc.15.6.201412.2417>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배성만 (2015). 한국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6(3), 51-65.
<https://doi.org/10.15703/kjc.16.3.201506.51>
- 서명옥, 강운심, 최보영 (2020). 사회적지지, 자기격려, 우울, 학업소진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내 대학생과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537-557.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0.537>
- 서인균, 이연실 (201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남, 녀 대학생 비교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6(3), 25-53.
- 손솔, 서경현 (2014). 대학생의 감사 성향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2), 619-635.
<https://doi.org/10.17315/kjhp.2014.19.2.010>
- 손한결, 김은혜 (2021).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자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다중매개효과: 청소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6(3), 225-232. <https://doi.org/10.21097/ksw.2021.08.16.3.225>
- 신재은, 이태현, 윤소진 (2017). Bifactor 모형을 적용한 CES-D 척도의 요인구조 검증. *스트레스연구*, 25(4), 272-278. <https://doi.org/10.17547/kjsr.2017.25.4.272>
- 신해림, 김정민 (2020). 청소년의 신체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거부민감성의 이중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4), 17-29.
<https://doi.org/10.5723/kjcs.2020.41.4.17>
-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https://doi.org/10.16983/kjsp.2012.9.2.347>
- 신혜진 (2019). 지각된 스트레스와 불안 및 우울의 관계: 성별에 따른 인지적 유연성과 속박감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 937-965.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1.937>
- 심은정 (2016).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의 유병률과 관련 요인. *청소년학연구*, 23(12), 663-689.
<https://doi.org/10.21509/KJYS.2016.12.23.12.663>
- 양혁, 이경주, 고혜연, 이상민 (2020).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 실행 가능성의 관계: 공황증상 동반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873-896.
- 우옥수, 이자영 (2020). 자기초점적 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계: 자기자비와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753-772.
- 우종필 (202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2012).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1), 274-283.
<https://doi.org/10.5762/KAIS.2012.13.1.274>
- 유하경 (2020).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통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조절된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동균, 서미아 (2021).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로 조절된 우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3), 21-40.
<https://doi.org/10.15703/kjc.22.3.202106.21>
- 윤소진, 장혜인 (201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걱정과 반추의 공통 요인(반복적 부정적 사고)과 차별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 709-734.
<https://doi.org/10.17315/kjhp.2019.24.3.010>
- 윤이나, 심은정 (2020).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주의편향 수정훈련에서 지시문 유형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159-181. <https://doi.org/10.21509/KJYS.2020.06.27.6.159>
- 이상미, 이숙 (2009). 기초연구: 내현적 자기애와 청소년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3(2), 15-28.

- 이석미, 박춘성, 성은현 (2021).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부부 갈등, 우울과 유아기 자녀의 공격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35(2), 237-257.
<https://doi.org/10.17286/KJEP.2021.35.2.01>
- 이선경, 팔로마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적 메타분석(1999-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8.
- 이성욱, 송현주 (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정서조절방략,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연구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3(1), 65-83.
- 이소영 (2014). 성인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과 우울경험 관련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8(1), 71-86.
<https://doi.org/10.5932/JKPHN.2014.28.1.71>
- 이인혜 (2008). 자기초점주의가 자전기억의 과일반화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633-651.
<https://doi.org/10.15842/kjcp.2008.27.3.004>
- 이지영 (2011). 자기초점적 주의와 정서조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13-133.
- 이지영, 권석만 (2005).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의 개발: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451-464.
- 이지원, 장은영 (2011). 외현, 내현적 자기애 그리고 자기고양동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441-458.
<https://doi.org/10.15842/kjcp.2011.30.2.005>
- 이현숙, 배상윤 (2019). 일개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및 우울 수준의 융복합적 관련성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7(4), 219-227.
<https://doi.org/10.14400/JDC.2019.17.4.219>
- 이현주, 이영순 (2020). 대학생의 내현적인 자기애성향과 자살생각의 관계: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인지적인 몰락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2(3), 315-332.
<https://doi.org/10.35185/KJET.12.3.2>
-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지은 (2021). 대학생의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 :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구철, 문종호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146-156.
<https://doi.org/10.5392/JKCA.2015.15.09.146>
- 정유정, 이동형 (2021). 대학생의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 367-389. <https://doi.org/10.21509/KJYS.2021.01.28.1.367>
- 정은이 (2011). 대학생을 위한 자기 성장 및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집단 상담의 효과 분석. *교육방법연구*, 23(4), 687-712. <https://doi.org/10.17927/tkjems.2011.23.4.687>
- 정은이 (2018).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이중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진 (2014).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나영, 이민규 (2017). 대학생의 성격양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3), 603-627.
<https://doi.org/10.17315/kjhp.2017.22.3.008>
- 조민희, 홍혜영 (2017).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효과. *통합치료연구*, 8(2), 35-60.
- 질병관리청. (2020). 202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2차년도. 청주, 충북: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 분석과.
- 최명주 (2015). 대학생 우울과 자기애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5, 191-207.
- 최바울 (2016). 대학생의 자기애 취약성 특성과 주관적 안녕감: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7), 143-166. <https://doi.org/10.21509/KJYS.2016.07.23.7.143>
- 최지선 (2011).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일반적 자기초점주의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나리, 이동귀 (2010).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7-156.
- 한유정 (2017).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주연, 박경 (2011).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9), 169-188.
- 함성민, 현명호 (2015). 자기초점 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적 반응양식에 의해 조절되는 자기비판의 매개효과: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23(4), 225-235. <https://doi.org/10.17547/kjsr.2015.23.4.225>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정송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인간발달연구*, 21(4), 1-24.
- Akhtar, M. D., & Thomson Jr,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12). *National College Health Assessment II: Reference group executive summary*. Hanover, MD: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rlington, VA.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https://doi.org/10.1037/0003-066X.55.5.469>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901_5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https://doi.org/10.1037/0022-3514.55.6.991>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https://doi.org/10.1521/pedi.17.3.188.22146>
- Gao, F., Sun, Y., Zhou, Y., Sang, M., Zhao, J., & Han, L. (2020). Shyness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dormitory belonging and inferior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9, 105571.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0.105571>
- Huprich, S., Luchner, A., Roberts, C., & Pouliot, G. (2012).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personality and hypersensitive (vulnerable) narcissism: Some preliminary findings.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6(1), 50-60. <https://doi.org/10.1002/pmh.176>
- Ingram, R. E.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s: Review and a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2), 156-176. <https://doi.org/10.1037/0033-2909.107.2.156>
- Larsen, R. J., & Cowan, G. S. (1988). Internal focus of attention and depression: A study of daily experience. *Motivation and Emotion*, 12(3), 237-249. <https://doi.org/10.1007/BF00993113>
- Lasch, C. (1980). The culture of narcissism.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44(5), 426-436.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3-13. <https://doi.org/10.1037/0003-066X.41.1.3>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365-379. <https://doi.org/10.1037/a0016530>
- Smith, T. W., & Greenberg, J. (1981). Depression and self-focused attention. *Motivation and Emotion*, 5(4), 323-331. <https://doi.org/10.1007/BF00992551>
- Smith-Adcock, S., & Kerpelman, J. L. (2022). Interpersonal stress,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gender matter for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Considerations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100(1), 64-74. <https://doi.org/10.1002/jcad.12402>
- Spitzberg, B. H., & Cupach, W. R. (1989).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https://doi.org/10.1007/978-1-4612-3572-9_1
- Takano, K., & Tanno, Y. (2009). Self-rumination, self-reflection, and depression: Self-rumination counteracts the adaptive effect of self-reflec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3), 260-264. <https://doi.org/10.1016/j.brat.2008.12.008>
- Weikel, K. A., Avara, R. M., Hanson, C. A., & Kater, H. (2010). College adjustment difficulties and the overt and covert forms of narcissism.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3(2), 100-111. <https://doi.org/10.1002/j.2161-1882.2010.tb00052.x>